

도로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동안 달성하였던 것을 30여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입니다



Greentings Message

친애하는 도로교통인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한 국도로교통협회 손학래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6회 '도로의 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또한, 도로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정을 바쳐 노력해 오신 도로교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날'은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경제의 당연한 기반시설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일각의 염려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를 재건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염원과 의지,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우리 선배들은 부족한 국가자본과 기술력의 한계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열정과 희생정신, 진취와 도전의 정신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 '전국 1일 생활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민의 생활과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도 이러한 열정과 도전이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을 '도로의 날'로 기념하는 것도 이런 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1970년대에 4만km에 불과했던 도로 총연장은 오늘날 3,000여km의 고속도로를 포함, 총 도로망이 10만여km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도로의 양적인 성장은 도로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동안 달성하였던 것을 30여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입니다만, 이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질적인 내실과 도약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시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시부 투자비중을 대폭 늘리고, ITS(첨단교통체계)와 Hi-Pass(무정차 요금징수시스템)를 활용한 첨단 도로체계를 구축하여 도로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이나 국민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와 산업, 국토개발이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접어든 현재, 복지 등 타 분야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도로교통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안배와 효율적인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단순히 물류 인프라를 넘어서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도로를 어디에, 언제, 어떻게 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므로 한치의 사심도 없이 국가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간도로망을 계획대로 구축하고자 민자 등 투자자원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총연장 6천 km를 건설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4차로 이상의 국도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여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도로교통인 여러분의 역할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은 국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차질만 빚어져도 곧바로 국민의 불편, 나아가 커다란 재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교량붕괴사고나 선로지반 붕괴사고에 국민들이 불신과 불안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 설계부실이나 감리 및 안전관리 소홀 등 시공의 기본 원칙과 절차 무시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점검,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도로교통인들의 노력이 더 없이 중요합니다.

도로의 설계, 시공, 감리에서부터 이를 유지하는 교통시스템, 교통시설, 부대시설 서비스 증진에 이르기까지 도로교통 산업의 선진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혁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발족식을 갖는 '한국 길 포럼'의 역할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선진국 정책의 벤치마킹, 비전 제시 등을 통해 도로교통 발전에 촉매가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당당히 일어난 땀과 노력,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우리 도로교통인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개통 37주년과 제16회 도로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6

건설교통부 장관 이 용 섭